

# 클린스만호, 싱가포르 상대 '골폭풍' 예고

### 33년전 7-0 대승의 추억...한국 16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첫걸음 상대 약하지만 최상의 전력 투입...황희찬 "최대한 많은 골 보여줄 것"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노력하겠습니다." (황희찬)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클린스만호 태극전사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대결할 싱가포르를 상대로 '화끈한 골 폭풍'을 예고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FIFA 랭킹 24위)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IFA 랭킹 155위의 싱가포르와 맞붙는다.

이번 싱가포르전은 미국·멕시코·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의 첫 경기다.

한국은 2차 예선 C조에서 싱가포르, 중국(랭킹 79위), 태국(랭킹 112위)과 맞붙는다.

상대국들이 모두 약체로 평가받는 만큼 한국은 각 조 1, 2위 팀에 주어지는 3차 예선 진출권 확보가 유력하다는 평가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늘 '다음 경기'가 가장 어렵다. 싱가포르, 중국과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월 A매치에서 2연승(튀니지 4-0 승, 베트남 6-0 승)을 거둔 상황에서 약체 싱가포르를 상대하는 만큼 선수들의 정신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독려하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지가 담긴 말이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21승 3무 2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최근에는 만날 기회가 없었다. 마지막 맞대결은 1990년 9월 23일 베이징 아시안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33년 전 싱가포르와 마지막 대결에서 서정원, 고정운, 김주성이 나란히 2골씩 넣고 홍명보가 1골을 추가해 7-0 대승을 거뒀다.

1953년 4월 1-3으로 첫 패배를 당하고, 1968년 8월 3-4로 저서 싱가포르에 2패째를 떠안았던 한국은 이후 치른 14경기(13승 1무)에서 51골을 넣고 단 한 골만 내주며 무패 행진을 이어왔다. 1972년 7월 테르데카컵에서 4-1로 승리할 때가 최근 들어 유일한 실점 경기였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실점이 51년 전이고, 33년 전 마지막 대결에서도 7-0 대승을 거둔 만큼 한국은 이번에도 신나는 골 잔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13일 취재진과 만난 황희찬(울버햄프턴)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준비할 것이다. 올해 한국에서 마지막 A매치인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비록 상대가 약체지만 최상의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펼쳐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



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스리그 경기를 예로 들면서 "전북 현대와 상대했던 라이언 시티에 싱가포르 국가대표가 8~9명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상대, 실력 차가 나는 상대와는 시작부터 우리 템포로 몰아붙이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다.

싱가포르전이 끝나면 19일 중국으로 이동해 오는 21일 중국 대표팀과 원정으로 2차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클린스만호는 충분히 골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대표팀은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황희찬

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주요 공격수들이 소속팀에서 공격포인트를 계속 쌓고 있고, 최후방에 '철기둥' 김민재(맨체스터 시티)가 든든히 버티는 등 '역대급 스쿼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주전급 선수들의 조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 /연합뉴스

## 변성환호, 강호 프랑스 상대 첫승 도전

### U-17월드컵 오늘 조별리그 2차전 반드시 이겨야 16강 진출 가능성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강팀 프랑스를 상대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첫 승리에 도전한다.

변성환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5일 오후 9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스타디움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치른다.

변성환호는 미국과의 1차전에서 1-3으로 겨 16강 진출에 '노란불'이 켜졌다.

24개국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이 대회에서는 각 조 1, 2위 팀과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변성환호로서는 프랑스에 승리해야 16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만약 프랑스와 비기거나 패한다면 3차전 결과에 따라 조 3위 확보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변성환호는 미국과 1차전에서 전반에만 골대를 두 차례 맞추는 등 불운에 땅을 치며 1-3으로 패했다.

변성환 감독은 미국전 뒤 "위험을 감수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 실점이 많았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는다"면서 "남은 경기도 우리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성환 축구'의 철학을 지키며 토너먼트 진출의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 결정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1차전에서 전반전 몇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골로 마무리 지었다면 승부의 흐름은 확 달라질 수 있었다.

'캡틴'이자 '주포'인 스트라이커 김명준(포항 U-18)은 미국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예선을 겸했던 2023 아시아축구연맹



변성환 감독이 지난 12일 조별리그 E조 1차전 한국과 미국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AFC) U-17 아시안컵에서 김명준과 함께 4골씩을 터뜨렸던 윤도영(대전 U-18)의 발끝에도 시선이 쏠린다.

미국전 패배의 주요 원인인 경기 막판 수비 집중력 저하 문제는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프랑스는 2023 유럽축구연맹(UEFA) U-17 챔피언십 준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1차전에서는 부르키나파소에 3-0 완승을 해 분위기가 좋다.

UEFA U-17 챔피언십에서 팀 내 최다 2골씩을 넣었으며 부르키나파소전에서도 1골씩을 책임진 마티스 람부르드, 티디안 고미스는 경계 대상 1, 2호다.

한국은 프랑스와 U-17 대표팀 간 전적에서 3전 전패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 맞대결은 2017 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에서였으며, 정상민(미네소타)이 뒤늦은 만회골을 넣은 한국이 1-3으로 졌다. /연합뉴스



여자 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우승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왼쪽부터 전하영, 윤소연, 최세빈, 서지연. <대한펜싱협회 제공>



강영미

유단우

## 최세빈·강영미·유단우...광주·전남 펜싱 빛냈다

### 전남도청 최세빈, 월드컵 사브르 단체전에서 프랑스 꺾고 우승 광주서구청 강영미·전남도청 유단우, 에페 월드컵 은메달 합작

광주·전남 국가대표 펜싱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여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청 최세빈은 13일(한국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서지연(안산시청), 윤소연(대전시청), 전하영(서울시청)과 함께 출전해 프랑스를 45-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의 우승은 베테랑 선수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궈낸 성과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펜싱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던 김지연(서울시청)은 지난 4월 은퇴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간판 유지수(서울시청)는 부상 회복을 위해 이

번 대회에서 빠졌다.

대표팀은 앞선 16강에서 루마니아를 45-28로 제압했고 8강 일본전에서는 45-44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헝가리에 45-27로 승리한 한국은 프랑스마저 꺾었다.

경기도 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도청 유니폼을 입은 최세빈은 2000년생으로 올해 23살이다. 지난해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1위를 했던 최세빈은 올해 대회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떨어져 5위에 머물렀다. 지난 9월 열린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경기대회에서는 단체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광주서구청 강영미, 전남도청 유단우는 이탈리아 레노노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 준우승

을 거뒀다. 이들은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과 함께 팀을 이뤄 출전했다. 16강에서 이집트에 45-29로 승리했고 8강전에서 45-39로 중국을 꺾었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폴란드를 39-35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만난 대표팀은 40-41로 아쉽게 패했다.

내년 파리 올림픽의 펜싱 경기는 2024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다. 단체전 출전권은 각 종목별 국가대표 8명 중 4명에게 주어지는데 전남도청 김용욱 감독은 최세빈이 엔트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욱 감독은 최세빈에 대해 "작년부터 대표팀에 들어와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 기량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 파리 올림픽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며 "아직 나이가 어려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형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30일
- 4관 형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톡 투 미
- 5관 더 마블스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톡 투 미
- 9관 여귀교- 저주를 부르는 게임, 금의 나라 물의 나라
- 7관 싸대끼들: 소년들, 뉴 노멀
- 8관 싸대끼들: 더 마블스, 프레디의 피자가게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8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